

北韓에 있어서 言論의 政策과 役割

徐 正 宇*

— 目 次 —

- | | |
|-------------------|------------------|
| I. 序 論 | IV. 北韓言論의 機能과 組織 |
| II. 北韓言論의 生成과 發展 | 1. 北韓言論의 機能 |
| 1. 新聞의 生成 | 2. 北韓言論의 組織 |
| 2. 通信社의 擡頭 | V. 北韓言論의 現況 |
| 3. 放送의 始作 | 1. 新聞의 現況 |
| 4. 雜誌의 沿革 | 2. 通信社의 現況 |
| III. 北韓言論의 理念과 政策 | 3. 放送의 現況 |
| 1. 言論의 理念 | 4. 雜誌의 現況 |
| 2. 北韓의 言論政策 | VI. 結 論 |

I. 序 論

北韓言論에 관한 研究는 크게 두 가지 次元에서 寄与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 北韓研究는 넓게는 言論의 全体的 理論定立에, 그리고 좁게는 言論의 共產主義 理論定立에 寄与한다. 다른 學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新聞學의 경우에서도 理論定立은 學問의 窮極的 目的이다.

理論을 一般的으로 普遍妥當한 一般法則이라고 간단히 定義한다면 이러한 法則의 定立은 學問的인 命題나 假說의 通時的 내지 共時的 立証이 不可避하다. 이 경우 通時的 接近은 歷史研究의 方法이 되겠고, 共時的 接近은 比較研究의 方法이 되겠다.

北韓 言論에 관한 研究는 言論의 共時的 立証을 可能케 함으로써 言論

* 新聞學博士, 延世大 教授

現象에 관한 一般法則을 提示해 줄 뿐만 아니라 言論의 共產主義 理論을 좀더 분명히 規定하는데 寄與한다.

北韓 研究의 두번째 機能은 특히 韓國의 경우, 北韓을 좀더 精確하게 알으로써 그것에 効果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實際的인 도움을 提供함에 있다. 南·北이 準戰時狀態로 極限 對立하고 있는 現實이 既定事實이라면 우리는 좀더 實質的인 次元에서 北韓을 알 必要가 있고 이러한 必要性은 北韓 研究가 상당한 部分을 充足시켜줄 수 있다.

北韓 研究가 이렇게 중요한 寄與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關係 研究는 아직도 始作의 閥門에 있다고 보아도 無妨하다. 두 가지 要因이 크게 作用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 要因은 理論 내지 理念的인 次元이고, 두번째 要因은 方法論의 次元이라 보겠다.

理論的인 問題點은 概念化의 問題點과 밀접히 連結되어 北韓問題에 관한 研究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共產主義國家에 存在하는 事件이나 事項들을 自由民主主義的인 立場이나 視覺으로 分析할 때 發生하는 誤謬는 엄청나게 많다. 같은 事項이라도 이데올로기에 따라 전혀 다른 概念을 가지게 되는 狀態를 어떻게 研究하느냐의 問題는 深刻하다. 그러니까 두 개의 理念 아래에서 生成·發展된 두 개의 다른 言論을 하나의 單位로 比較分析할 수 있느냐의 問題도 深刻하다. 이것은 北韓에 과연 言論이 存在하느냐의 問題로까지 擴大될 수 있겠다.

두 번째 障礙는 순전히 研究方法에 掲載하는 問題들이다. 우선 比較研究의 生資料가 될 수 있는 北韓 言論에 관한 데이터의 深刻한 不足現像이 問題로 提起된다. 이것은 특히 南·北이 準戰時狀態로 對峙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深化되었고 北韓 政治體制가 가지고 있는 閉鎖性이 이것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言論이란 대단히 중요한 國家的 機關이고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機關에 대한 資料의 對外的 拡散은 엄격히 統制되어 있어 資料의 窮乏은 더욱 深刻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資料의 絶對量이 不足할 뿐만 아니라 資料의 信賴性, 즉 資料의 質이 또한 深刻한 問題로 提起된다. 共產主義의 경우 戰略的인 目的의 達成을 위해서는 戰術的인 次元에서의 事實의 歪曲, 誇張, 그리고 虛爲의 使用 등

은 얼마든지 合理化 된다는 사실을 勘案할 때 資料의 正確性과 客觀性은 北韓 言論에 관한 客觀的인 研究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

北韓 言論에 관한 研究를 遂行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障礙要素가 있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해서 北韓研究의 重要性이 이러한 障礙 때문에 減少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 逆說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研究上 障礙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關係研究는 좀더 성실하게 可能的 問題들만을 優先的으로 記述해서 整理할 必要性이 增大된다.

本稿는 이러한 必要性을 念頭에 두고 執筆되었다. 따라서 本稿의 基本性格은 記述的인 研究이며, 概存하고 있는 資料들을 한 곳에 綜合整理하는 研究이며, 그리고 앞으로의 比較研究나 豫測的 研究를 위한 基礎研究라고 말할 수 있다.

Ⅱ. 北韓言論의 生成과 發展

言論을 社会的 機構라고 함은 社会的 必要性의 産物이란 뜻이다. 따라서 言論에 대한 理解는 不可避하게 그러한 機構나 組織이 誕生하게 된 社会的 背景에 대한 理解를 必要로 한다. 便宜上 北韓에 있어서 言論을 新聞·通信·放送·雜誌에 局限해서 그들이 어떻게 生成되었나를 살펴보면 대개 아래와 같다.

1. 新聞의 生成

北韓新聞의 始作을 어떻게 規定하느냐 하는 問題는 新聞史 研究의 重要한 課題의 하나이나 여기에서는 便宜上 北韓當局이 規定하는 立場을 紹介함으로써 理解를 도울까 한다.

北韓當局은 北韓新聞의 嚆矢를 1936年 初로 보고 있는 것 같다.¹⁾ 이 資料에 의하면 金日成은 1936年 2월에 中國 寧安縣 南湖頭에서 反日民族統一戰線의 組織체로서 「祖国光復會」의 結成을 發起하면서 會議를 召集했고 이러한 反日民族統一戰線運動의 擴大方案으로 新聞을 包含한 一連

1) 《조선노동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길》, 東京: 조선청년사, 1965年, 41面.

의 定期刊行物을 發行하기로 決定했다.

같은 해 12月 1日에 「祖国光復會」는 機關誌로 月刊雜誌 <三・一月刊>을 最初로 發刊했는데,²⁾ 이것이 一般的으로 北韓 新聞의 始作으로 認定되고 있다. 이 刊行物은 비록 雜誌의 形態를 取하고 있으나 政治宣傳과 煽動을 包含한 共產主義의 新聞의 機能과 役割을 担当하고 있어 넓은 意味의 新聞으로 認定될 수 있는 것 같다.

1937年 5月에는 革命軍隊 內의 政治新聞인 <曙光>이 發刊되었고, 同時에 民族解放同盟의 機關誌로서 <火田民>, 그리고 軍隊內의 週刊誌로서 <중소리>가 계속 發刊되었다.³⁾

1945年 解放이 되고 그 이듬해 8月 10日에 있었던 主要産業의 國有化法令이 發効되면서 그 當時 日人들이 所有했던 9種의 日刊誌와 34種의 月刊誌를 모두 國有化하여 共產主義 新聞으로 改造하는데 필요한 契機를 만들었다.⁴⁾ 그 結果 北韓은 1946年末 現在 이미 27種의 共產新聞과 하나의 通信社를 確保했고, 約 15年이 지난 1962年 現在 29種의 主要新聞과 475種의 다양한 職場新聞을 所有하게 되었다.

北韓에 있어서 新聞 역시 다른 대부분의 共產國家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政治指導者의 政治的 煽動・宣傳의 一次的 道具로 生成되었으며 初創期부터 國家에 의해 완전히 所有 統制되는 形態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當時 이러한 機關誌의 至上命令은 反日感情의 鼓吹와 民族統一戰線의 構築을 위한 宣傳・煽動이었다.

2. 通信社의 擡頭

北韓에 있어서 通信社의 擡頭는 新聞의 경우보다 상당히 늦은 1946年末이 되겠다. 그 當時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그 機關의 直屬으로 1946年 12月 5日에 「北朝鮮通信社」란 이름으로 強力한 中央執權의 單一

2) 《朝鮮人民의 自由와 解放》(日記), 東京: 未來社, 1971年, 47面. 新聞의 始作에 대하여 北韓當局의 立場이 統一되어 있지 않음을 留意.

3) 徐正宇外, 《比較新聞學》, 서울: 博英社, 1975年, 148面.

4) <韓國言論年表(1911~1945)>, 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3年, 579~584面.

体系로 發足시켰다. 이것이 北韓에 있어서의 通信活動의 始作이다.

그後 北朝鮮通信社는 1948年 10月 12日에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直屬에서부터 內閣의 直屬으로 옮겨와 그 名称도 「朝鮮中央通信社」로 바꾸었다. 이 通信社의 主要 役割은 政務院의 委任에 의해 北韓當局의 公式的인 聲明을 發表하는 것을 包含해서 勞動黨과 政務院의 代辦機關의 任務를 遂行하며 内外의 情報를 統括해서 指導함으로써 北韓 言論을 위해 中心的인 活動을 遂行하고 있다.

1949年 9月부터 中共의 新華社와 特派員을 交換하여 北京에 駐在特派員을 派遣하고 있으며 소련의 타스通信을 비롯한 世界 여러 나라 通信을 受信하고 日刊 <조선중앙통신>을 發行하고 있다. 1954年부터 日刊 <노동중앙통신>과 月刊 <국제생활>을 發行했으며 沙里院과 開城에 支社를 新設했다. 또한 이 해 9月 1日부터는 對外放送을 1日 平均 英文 4時間, 國文 6時間 程度로 實施하고 週刊으로 <블레쥬>을 發刊하고 있다.⁵⁾

3. 放送의 始作

北韓에 있어서 放送이란 南韓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27年 2月 16日에 日人에 의해서 始作된 社團法人 「京城放送局」까지 遡及될 수 있겠다. 그 當時 京城放送局은 出力 1킬로와트, 呼出符號 JODK로서 韓半島 全域에 걸쳐 放送을 實施했다. 北韓에는 그 當時 平壤·咸興·清津·海州, 그리고 元山 등 5個 都市에 日人放送局이 있었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 放送事業이 北韓 政治家들에 의해 政治적으로 動員되어 活用된 時點은 1945年 10月 14日로써, 金日成의 歸還을 歡迎하기 위한 「祖國凱旋歡迎 平壤群衆大會」를 實況中繼할 즈음이 되겠다. 그 때 北韓政治家들은 日人 放送局이었던 「平壤放送局」의 施設과 機能을 整備하여 「朝鮮中央放送局」으로 改稱하여 500와트의 出力으로 放送했다.⁷⁾

5) 韓國新聞研究所, <78 韓國新聞放送年鑑>,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1978年, 95面.

6) 《文化京郷社史》, 서울: 문화방송·경향신문, 1976年, 315~317面.

7) 徐正宇外, 前掲書, 152~153面.

이 放送局도 6.25 動亂으로 放送施設이 破壞되어 그 機能을 喪失하게 되었으나 休戰과 더불어 北韓은 北韓住民을 戰後復旧事業에 勞力動員하기 위하여 放送의 施設과 機能을 大幅 強化하기 始作했다. 그리하여 1955年 4月에는 放送施設 擴張計劃의 一環으로 소련으로부터 援助를 받아 「朝鮮放送局」의 出力을 150 킬로와트로 增加시켰으며 그後 다시 300 킬로와트로 大幅 擴張시켰다.⁸⁾

北韓은 또한 1967年 3月 15日 「南朝鮮解放 民主民族聯盟」放送이라는 黑色放送을 實施한 바 있다. 2年 後인 1969年 8月 15日 北韓은 南韓地域 內에 소위 「統一革命黨」을 組織했다고 主張하더니 ○ 듬해 6月 15日 同放送 名稱을 「統一革命黨의 목소리」放送으로 바꾸었다 北韓은 이 放送을 南韓地域의 「反政府容共勢力」이 糾合하여 組織한 「統一革命黨」의 代辯放送이라고 主張하고 放送施設도 南韓에 位置하고 있다고 宣傳하고 있다.⁹⁾

北韓에 있어서 텔레비전放送은 1967年 「平壤텔레비전放送局」의 開設과 더불어 비로소 始作되었다. 그리고 1971년에는 「開城텔레비전放送局」이 생겨 「朝鮮中央放送局」의 프로그램을 中繼하고 있다.

4. 雜誌의 沿革

北韓에 있어서 雜誌出版物의 登場은 前述한 바와 같이 1936年 12月 1日에 出版된 <三・一月刊>으로 보고 있다. 北傀 勞動黨 中央委員會 直屬인 「歷史研究所」의 論文集 가운데 「革命的 出版物에 대한 金日成同志의 指導」라는 글에 의하면 『金日成은 1936年 12月 南湖頭會議에서 革命의 前途를 내다보고 광범한 反日統一戰線體制를 형성해서 大衆的 基盤 위에서 黨創立의 組織的・思想的 準備를 하고 抗日武裝鬭爭을 國內에까지 擴大하는 것을 企圖하였는데 그때 實踐方法의 하나로 政治新聞과 一連의 定期刊行物을 發行할 計劃을 세웠다』¹⁰⁾ 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北韓에 있어서

8) 《北韓全書》中卷, 서울:社団法人極東問題研究所, 1974年, 252面.

9) 内外通信社, 《内外通信》(綜合版), Ⅲ, 1977年, 158面.

10) 《人民의自由と解放のため國》, 평양:外國文出版社, 1968年.

最初の 雜誌이며 純粹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出版物이라고 評價되고 있다.

金日成은 이 最初の 思想理論雜誌를 創刊하면서 그 創刊動機를 『獨立運動 戰線의 勝利的 前進을 願하는 全体 愛國同胞들의 要求와 우리 戰線의 絶對的 要求에 의하여……「祖國光復會」의 機關誌로서 우리 獨立戰線에 直接 出進하는 有力한 武器의 하나로 되기 위하여……創刊한다』¹¹⁾ 라고 밝히고 있다.

北韓에서는 1945年 8.15以後 1947년까지 20餘種의 雜誌가 約 481万部 程度 發刊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年度別도 보면 1946年度에는 29種 44万餘部, 1947年度에는 22種 130万部, 1948년에는 39種 310万餘部를 發行하였고, 1949年 上半期에는 7種의 自然科學雜誌가 發刊되었다.¹²⁾

이 當時 發刊된 雜誌로는 <근로자>를 비롯하여 <인민>·<노동자농민>·<조선여성>·<청년생활>·<새조선> 등 30餘種이 된다. 6.25 動亂 以後부터 1960年度 사이에 發刊된 雜誌로서는 <노동자연맹생활>·<새세대>·<청년문학>을 包含한 40餘種이었다. 1961年度에는 69種 3,600餘万部の 雜誌가 出版되었고 1964년에는 <오늘의 조선>을 비롯한 對外宣傳用 雜誌가 出版되었다.¹³⁾

Ⅲ. 北韓言論의 理念과 政策

어느 社會를 막론하고 理念과 政策은 緊密한 關係에 있다. 즉, 理念은 政策의 土臺가 되고, 바꾸어서 政策은 理念의 具顯이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 言論에 대한 正確한 理解는 言論 理念과 그 具顯인 政策에 대한 理解를 必要로 한다.

11) 《정치용어사전》, 1973, 622面 : 金鍾完, 「人間改造의 思想的 武器」, <北韓>, 通卷63号, 1977年, 70面에서 再引用.

12) 金鍾完, 上揭論文, 71面.

13) 上揭論文, 72面.

1. 言論의 理念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政府와 言論은 두 개의 相互補完的인, 혹은 相互葛藤的인 機關이 아니고, 하나의 機關이다. 따라서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言論理念은 國家理念이나 政治理念으로부터 分離해서 考慮할 수 없다.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 言論이야말로 政治体制의 下部構造라고 보아도 無妨하다.

北韓에 있어서 言論理念은 마치 北韓의 政治理念이 소련의 共產主義를 母胎로 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言論理念을 그대로 模倣하고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北韓 言論을 理念的으로 理解하기 위해선 그것의 土臺가 되어온 소련 言論의 理念을 關聯시켜 說明할 必要가 強하다. 그만큼 共產主義 言論은 理念과 實踐面에서 劃一性을 維持하고 있다고 보겠다.

北韓에 있어서 言論理念 역시 다른 理念과 마찬가지로 人間의 本性에 대한 立場에서부터 始作된다고 보겠다. 이러한 立場에 의하면 人間이란 그 自体로서는 큰 意味가 없고 어떤 뛰어난 領導者에 의해 얼마든지 그 形狀을 달리 할 수 있는 人間의 集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人間 個個人이 하나의 目的的 存在가 아닐 뿐만 아니라 合理的으로 思考해서 正確한 判斷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理性的 存在가 아니며, 感性的이고 非理性的인 原始的 내지 手段的 存在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集團이나 國家에 대한 立場도 根本적으로 個人에 대한 視覺에서부터 緣由된다. 個人이란 無能하고 感性的이며 非合理的인 存在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못된 思想이나 위험한 思考로부터 保護해야 할 保護者가 必要하며, 이 경우 그러한 保護者는 國家나 政府가 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그런데 이 경우 問題는 그러한 保護者로서의 國家나 政府는 國民에 의해서 選出된 集團이 아니고 自己 스스로 任命한 少數權力集團이란 事實이다.

그렇기 때문에 自由主義國家에서 볼 수 있는 政府와 言論의 「자연스런 敵對關係」란 있을 수 없으며, 言論은 철저하게 政治体系의 하나의 下部構造로서 그 政治体系의 利益을 위해서만 機能과 役割을 遂行해야 한다.

自由와 統制의 問題도 비슷한 脈絡에서 理解되지 않으면 안된다. 北韓에 있어서 言論自由란 言論이 黨의 路線이나 政府의 政策을 충실히 傳達

하고 宣傳・煽動하고, 그리고 組織・動員할 때에만 可能하다고 보며, 따라서 「政府로부터의 自由」란 成立하지 않는다. 北韓에 있어서 言論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統制될 때 가장 자유스러운 것이다.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統制란 否定的인 概念이나 共產主義國家인 北韓에 있어서는 肯定的인 概念의 하나이다.

北韓에 있어서 真理나 眞實은 北韓의 政治體系가 定한 어떤 것이지, 그 이상 혹은 그 以下의 어떤 것도 아니다. 具體적으로 말하면 北韓에 있어서 眞實이란 바로 朝鮮勞動黨의 路線 바로 그것이다. 言論이란 이러한 眞實만을 위해 일해야 하며 이 大前提를 懷疑 혹은 否定하는 어떠한 自由도 非自由에 屬한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에 있어서 言論은 철저하게 國家에 의해서 所有・運營되며 言論活動을 위해 予算과 施設은 全部 國家에 의해서 提供된다. 記者는 철저하게 党性을 土臺로 教育・訓練되며 朝鮮勞動黨의 高位幹部黨員이다. 따라서 記者職은 대단히 중요한 職責이며 記者活動은 대단히 眞摯한 政治的 活動의 하나이다.

言論은 本質적으로 道具 내지 武器의 概念이다. 이 경우 道具란 黨이나 政府의 道具로서 大衆을 宣傳・煽動하고 組織・動員하는 道具란 뜻이며 武器란 共產主義의 敵 그리고 無産階級과 勤勞大衆의 敵을 撲滅하기 위한 理念的 武器란 뜻이다. 그러니까 北韓에 있어서 言論이란 그 本質的 屬性에 있어서 政治的이며, 理念的이며, 階級的이고 党的일 뿐만 아니라 大衆的이라고 봄이 妥當하다.

2. 北韓의 言論政策

前述한 바와 같이 言論政策이란 言論理念의 具體적인 形狀이다. 따라서 北韓에 있어서 言論政策이란 言論이 朝鮮勞動黨의 黨路線을 충실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그 限界를 規定하고 組織하는데 集中되고 있다.

우선 北韓의 基本法인 憲法이 이 問題와 關聯해서 言論의 位置를 어떻게 規定하고 있는지 살펴볼 必要가 있다. 소위 말하는 北韓의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社會主義憲法」에 의하면 北韓의 國家的 性格을 「社會主

義國家」로 規定하고 있으며(第1條)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적으로 適用」했다는 「主體思想」을 그들의 國家的 指導理念으로 삼고 있다(第14條)¹⁴⁾

言論自由에 관해서는 北韓 憲法 第4章 第53條는 『公民은 言論·出版·集會·結社 및 示威의 自由를 가진다. 國家는 民主主義的 政黨과 社會團體의 자유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의 社會科學出版社에서 1973년에 刊行한 《政治辭典》에 의하면 言論自由란 金日成의 『敎示와 그 具顯인 黨의 路線과 政策을 解說·宣傳하며 그것을 철저히 擁護·貫徹하고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加一層 強化하여 人民들의 政治思想의 統一과 團結을 強化하여 그들을 黨과 首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服務한다』라고 規定되고 있다.

以上の 規定들을 土臺로 몇가지 言論政策과 關聯된 事實들을 提起할 수 있겠다. 첫째 事實은 北韓의 憲法이 비록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적으로 北韓 實情에 맞도록 適用하고 있다고 規定하고 있지만 言論政策의 경우 대부분 소련의 言論理念과 政策을 그대로 踏襲하고 있다고 보겠다.

北韓에 있어서 言論政策은 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徹頭徹尾하게 黨의 一次的 體制下에 計劃되고 執行되고 있다. 좀더 具體적으로 說明하면 北韓에 있어서 言論政策은 朝鮮勞動黨 黨中央委員會所屬 宣傳·煽動部에 의해서 그의 모든 것이 決定된다. 形態적으로는 黨과 政務院의 二重體制로 보이는 內容에 있어서는 黨의 獨點的이고 優先的인 政策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言論政策의 基本方向 등은 모두 宣傳·煽動部에 의해 決定되며 政府의 機關들은 行政節次上的 問題에만 行政的·統制와 監視·監督을 實施하게 된다.

金日成 自身도 宣傳·煽動部の 役割과 機能에 관하여 『組織指導部와 宣宣煽動部가 사람들을 革命化하는데 가장 중요한 役割을 하고 있다. 組織指導部와 宣傳煽動部の 相互關聯性은 醫師와 藥劑師의 關係와 같다. 가령 組織指導部에서 黨生活의 診斷이 떨어지면 宣傳煽動部는 処方을 해야 한다』¹⁵⁾ 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니까 北韓의 경우 組織指導와 宣傳煽

14) 崔禎鎬, 「北韓의 言論政策」, <北韓>, 通卷 63 号, 1977 年 3 月, 46 面에서 再引用.

15) 極東問題研究所(編), 《北韓全書》上卷,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年, 239 面.

動이 가장 重要한 두가지 事業임을 쉽게 알 수 있겠다.

두번째 事實은 言論自由와 關係되는 局面이 되겠다. 北韓에 있어서 言論의 自由란 公民에 의해서만 享有될 수 있다는 事實도 興味롭지만 그 自由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自由活動 그 自体가 아니고 자유스러운 活動을 할 수 있는 條件임이 特徵的이다. 『國家는 民主主義的인 政黨이나 社會團體의 自由로운 活動條件을 保障한다』는 條件規定이 바로 이 事實을 그대로 說明하고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러한 政策的 方向에 따라 北韓의 言論은 對內外的으로 金日成의 唯一思想이나 「主體思想」을 宣傳煽動하는 手段이나 武器로 固合되어 있다. 北韓의 경우 新聞·放送·雜誌·通信 등이 하나의 目的으로, 하나의 機構에 의해 監視·監督되면서 合해서 言論活動을 遂行하고 있다.

IV. 北韓言論의 機能과 組織

北韓에 있어서 言論의 機能과 組織 역시 크게는 소련의 모델에서 離脱되지 않고 있다. 機能과 組織을 区分해서 說明하면 대개 아래와 같이 要約이 可能하다고 보겠다.

1. 北韓言論의 機能

北韓 言論의 機能도 一般的으로 集團의 宣傳者, 集團의 煽動者, 그리고 集團의 組織者로 나누어진다고 보겠다. 北韓의 《조선말사전》에 의하면 宣傳이란 『一定한 思想·知識, 또는 事實을 널리 認識시키는 일이며, 煽動은 大衆을 政治的으로 教養하며 賦課된 社會·政治的 課業을 遂行토록 推動하는 일』이라고 定義되고 있다.

朝鮮勞動黨 中央委 文獻에 의하면 『宣傳事業은 黨員을 마르크스-레닌主義 思想과 理論으로 教養하며 黨政策으로 튼튼히 武裝시키는 事業이며, 煽動事業은 群衆의 氣勢를 돋우고 그들을 革命課業 遂行에로 發動시키는 事業』으로 定義되고 있다. 따라서 宣傳이란 大衆의 無自覺的 또는 無意識的 態度를 覺醒시키는 作業이라고 본다면, 煽動은 覺醒된 大衆을 鬭爭

으로 이끄는 具體的인 作業이라고 規定할 수 있겠다. 宣傳·煽動 다음으로 「指令」이란 作業이 있는데, 이것은 大衆을 行動化시키는 活動이다.

즉, 北韓에 있어서 言論의 機能이란 다른 共產主義 國家들의 경우와 비슷하게 政治的 宣傳·煽動의 武器이며 手段이 되고 있다. 이러한 政治的 手段을 통해 北韓의 政治担当者들은 첫째 메시지 內容을 歪曲됨이 없이 各級 機關의 下部組織까지 效果的으로 指示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政治的 메시지를 直接的인 命令系統을 통해 外部의 個人에게 傳達할 수 있으며, 셋째로는 特定施策을 大衆이 熱情的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煽動할 수 있고 一定計劃을 實行하는데 大衆動員을 도울 수 있어 指導理念의 高揚에 利用 可能하며, 넷째로는 國家의 政治·經濟的 機構들을 支援토록 宣傳·煽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세 가지 機能 外에 北韓言論은 다른 共產主義 國家와 비슷하게 自我批判의 機能을 廣範圍하게 行使하고 있다. 물론 自我批判의 경우 共產主義理論이나 朝鮮勞動黨의 路線의 範圍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言論의 自我批判 機能은 北韓 政治指導者로 하여금 그들의 政策에의 大衆의 反應을 蒐集하는데 크게 寄與하고 있는 것 같다.

金日成은 北韓新聞의 機能에 言及하면서 『우리 黨의 機關紙인 <로동신문>의 中心課業이 되는 것은 黨의 方針과 政策, 黨員들의 鬭爭任務를 日常적으로 解説함으로써 黨員들을 教養하는 것이며, 政府의 機關紙인 <민주조선>의 中心課業으로 되는 것은 人民政權의 法令·規定 및 國家의 政策을 群衆속에 解説 浸透시킴으로써 그들을 國家政策 實行에 動員하는 것이다. 聯盟 등 기타 團體들의 機關誌들도 자기의 性格과 任務에 맞게 編輯해야 할 것이다』¹⁶⁾ 라고 밝혔다.

北韓의 放送 역시 宣傳·煽動·組織이라는 3大 機能을 土臺로, ①黨路線과 政策의 擁護, ②組織動員, ③人民教養, ④人民武裝, ⑤黨의 對外政策 宣傳, ⑥金日成 偶像化, ⑦言語의 革命化, ⑧心理戰 遂行 등의 具體的

16) W. Philips Davison, *International Political Communication*, New York: Frederick Praeger Inc., 1965, p. 98.

17) 金日成, 「사상사업에서 고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제를 확립한데 대하여」, 《金日成選集》제4권, 1964年, 353面.

인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¹⁸⁾ 放送이 遂行하는 具體적인 任務로서는 ①社會主義 建設 促進, ②全社會의 革命化 實現, ③黨政策 解說 宣傳, ④黨의 唯一思想 擁護, ⑤思想敎養, ⑥反帝·反美鬭爭, ⑦革命的 內容 編成, ⑧全地域的 放送事業 推進, 그리고 ⑨緊張態勢 高潮 등이다.¹⁹⁾

通信社의 機能과 役割도 크게는 宣傳·煽動·組織의 테두리 속에서 規定되고 있다. 1976年 12月 4日 平壤의 人民文化宮殿에서 開催된 「朝鮮中央通信」의 創立 30周年 記念報告會에서 社長인 金成杰은 通信社의 機能과 役割과 關聯해서 『金日成이 中央通信을 創立했다. 勞動黨과 人民은 金日成을 政治·思想的으로 擁護 保衛하며 그의 主体思想을 널리 宣傳하고 그 實現에도 人民大衆을 힘있게 불려 일으키는 또 하나의 機動的이며 戰鬪적인 思想武器를 가지게 되었다』고 說明했다.²⁰⁾ 金成杰은 「中央通信社」의 앞으로의 任務로서, ①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철저히 세우기 위해 報道·宣傳事業을 強化하고, ②黨의 唯一思想 敎養과 革命敎養·階級敎養·共產主義 道德敎養·社會主義敎養을 끊임없이 深化시켜 勤勞者들을 金日成에게 忠直한 革命戰士로 準備시키며, ③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 旗幟를 높이 들고 政治煽動과 經濟煽動을 옹기 結合시키며 특히 經濟煽動을 強化하고, ④南朝鮮革命으로 人民大衆을 불려 일으키는 報道·宣傳事業을 強化하며 世界革命的 人民들의 反帝·反美鬭爭을 적극 支持 聲援한다 등을 提示했다.²¹⁾

北韓 通信社에 관한 한 研究論文은 北韓의 「中央通信社」의 機能과 役割을 아래와 같이 要約·整理하고 있다.²²⁾

첫째, 勞動黨과 政權機關의 代辯機關이다.

둘째, 對内外의 모든 뉴스에 대한 統制機關이다.

셋째, 北韓의 對内外 政策을 效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宣傳·煽動機關

18) 極東問題研究所(編), 《北韓全書》中卷, 서울:極東問題研究所, 1974年, 255面.

19) 上掲書.

20) 金仁洙, 「黨과 政權機關의 代辯役」, <北韓>, 通卷 63号, 1977年 3月, 96面에서 再引用.

21) 上掲論文, 97面.

22) 上掲論文, 97~98面.

이다.

네째, 對內外的인 對南謀略機關이다.

雜誌를 포함한 出版物의 機能 역시 宣傳・煽動・組織이 그 基礎를 이루고 있다. 雜誌의 機能과 關聯된 北韓의 立場들을 引用으로 간단히 要約하면 대개 아래와 같다.²³⁾

첫째, 『北韓의 모든 党的 出版物들은 새로운 發展段階에 들어선 革命의 要求에 맞게 그 戰鬪的 機能과 役割을 벌임으로써 온 社會를 主体思想化하는 歷史的 衛業에 이바지해야 한다.』

둘째, 出版物이 自己의 任務를 원만히 遂行하기 위해서는 『특히 經濟 煽動을 積極的이고도 集中的으로 殲滅戰의 方法으로 힘있게 벌이며…… 한 줄의 글을 쓰고 한 件의 原稿를 執筆해도 그것이 党和 勞動階級과 革命에 참답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大衆의 心琴을 세차게 激動시켜 모두가 党이 부르는 鬪爭의 길에 衝天한 氣勢로 떨쳐나서게 해야 한다.』

셋째, 『出版物은 党和 大衆을 連結시키는 중요한 手段이며, 党이 提示한 政治・經濟・文化建設의 課業實踐에로 勤勞大衆을 組織・動員하는 強力한 武器인 것이다.』

2. 北韓言論의 組織

北韓에 있어서 言論의 最終的인 統制機關은 勞動黨이다. 이것을 좀더 具體적으로 說明하면, 新聞은 勞動黨中央委員會의 宣傳煽動部 新聞課의 監視・監督을 받아 發刊되고 있다. 이러한 政治的인 統制는 위로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을 위시해서 아래로 各市・道에서 發行되는 新聞, 工場・企業所・國營農牧場에서 發行되는 新聞, 그리고 社會團體 및 大學에서 發行되는 新聞에 이르기까지 一糸不亂하게 行해지고 있다.

물론 勞動黨 中央委員會 機關紙인 <로동신문>은 編制上 宣傳・煽動部와 別途로 機構化되어 各 機關이 橫的인 關係를 維持하고 있고, 政務院은 政務院대로 文化藝術部 밑에 群衆文化局・藝術局・映画管理局・對外事業

23) 金鍾完, 前掲論文, 74~75 면에서 再引用.

局・音樂舞蹈局・演劇美術指導局의 6個 局과 直屬의 出版總局을 두어 言論을 包含한 文化藝術에 대한 行政的인 統制를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의 統制는 어디까지나 新聞 發行에 따른 行政的인 統制이고 黨의 統制는 政治的 統制인 만큼 言論統制에 관한 限 黨의 統制가 優先한 것은 論議의 餘地가 없다.

宣傳・煽動部의 主要 任務는 中央政治委員會에서 基本政策이 決定되면 即刻的으로 그것을 解説하는 計劃을 作成하여 中央과 地方의 言論機關에 指示하고 그 執行을 監督한다. 그 任務는 下向的인 監視・監督에만 그치지 않고 上向的으로 大衆의 立場을 上部에 反映하는 소위 말하는 「二次線 커뮤니케이션」의 役割까지를 包含하고 있다.

宣傳煽動部의 構成은 소련의 形態를 模倣하여 部長 1名, 副部長 4名에 의하여 指導되며 副部長 4名은 各自 課 單位의 群衆宣傳・出版管理・新聞管理, 그리고 理論教育의 部署를 責任 맡는다. 人口 100名에 1名 以上으로 組織되는 煽動員을 活用해서 大衆앞에 나타나 直接 口頭와 對人 接觸方法을 통해 說服하고 解説하며 또한 大衆들의 反應이나 要求事項을 위로 反映시킨다. 煽動員들은 주로 敎員・記者・演芸人 등으로 構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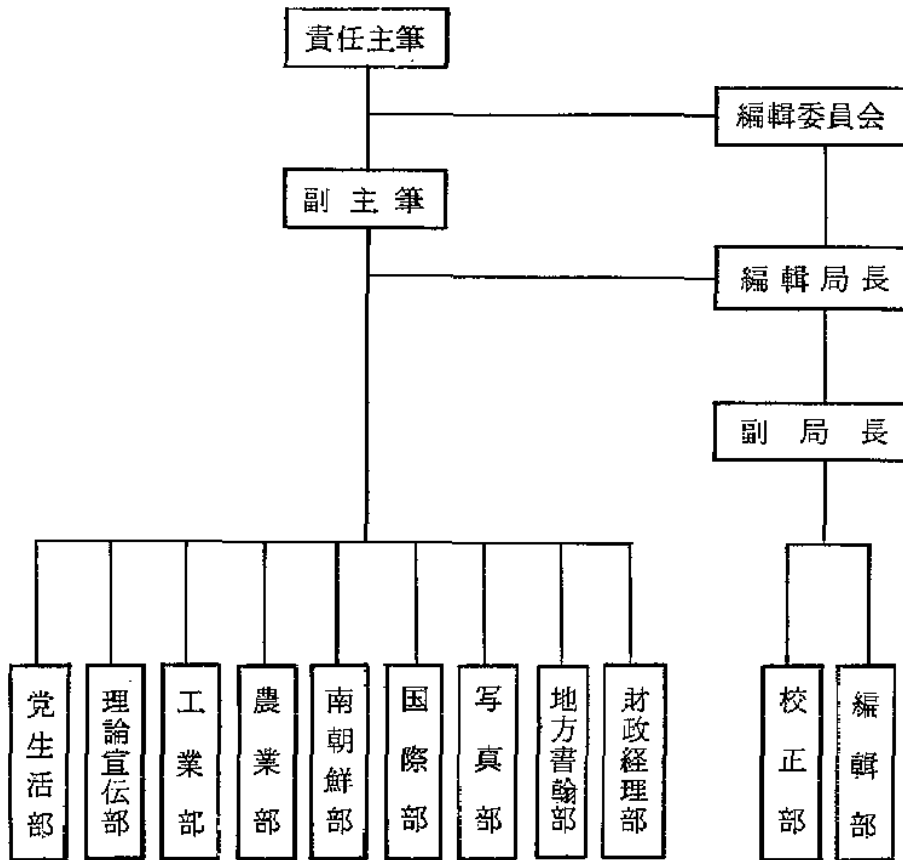
宣傳煽動部는 體制上 政治委員會의 下位體系로 되어 있으나 實際의 共產黨組織에서는 組織指導部가 序列上 첫째이고, 그 다음에 宣傳煽動部가 位置하기 때문에 그 比重이나 役割이 엄청나게 重要하다고 보겠다. 宣傳煽動部가 北韓에 있어서 重要하게 位置하고 있다는 事實은 그곳에 있어서 言論의 位置가 그만큼 重要하다는 뜻이 되겠다.

統制의 手段으로는, 첫째, 物質的 諸 條件에 대한 統制 둘째, 処罰에 의한 統制, 셋째, 取材에 대한 統制, 넷째, 黨에 의한 新聞社內 各 幹部 및 記者의 任命에 의한 統制, 다섯째, 위로부터의 監視監督과 아래로부터의 批評 등을 들 수 있겠다.²⁴⁾ 新聞記事는 一次的인 段階로 우선 新聞社內의 幹部에 의해서 監視 監督되고 그 다음 政務院 直屬의 出版總局 檢閱部の 檢閱을 거쳐 最終的으로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宣傳煽動部 新聞課의 檢閱을 받는게 一般的이다.

24) 朴東雲, 《北韓統治 機構論》, 서울: 高大 重細亞問題研究所, 1964年, 167面.

北韓 新聞의 組織은 大部分의 경우 党機關紙로서의 <로동신문>과 內閣의 機關紙 <민주조선>의 體系를 模倣해서 各기 상황에 맞추어 縮小 組織하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 新聞組織의 理解를 위해 <로동신문>의 機構를 紹介하면 아래와 같다.

<로동신문>社 機構圖



<로동신문>의 責任主筆은 新聞社 內의 實務責任者로서 党的 高位實力者로 補한다. 1973年 9月 20日 北韓은 政務院 副總理級 人事改編을 斷行함에 있어서 <로동신문>의 責任主筆이며 記者同盟中央委員會 委員長인 鄭準基를 思想担当 副總理로 任命하면서 <로동신문>의 位置를 더한층 올린 것 같다. 北韓의 경우 <로동신문>의 責任主筆은 當然職으로 記者同盟中央委員會의 委員長이 된다.

副主筆은 3名이며 編輯委員會는 主筆·副主筆·編輯局長·副局長·部長을 包含한 12名 以上으로 構成된다. 各部 가운데에서 가장 核心이 되고 있는 部署는 党生活부와 理論宣傳部로서 이들 部署는 共產主義理論, 党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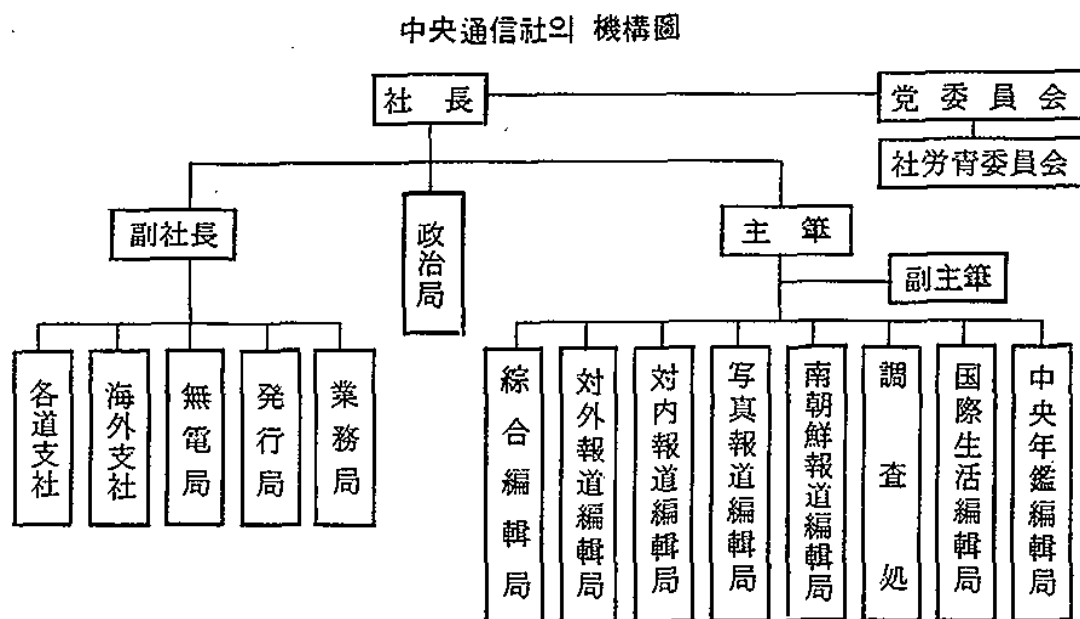
路線 및 政策, 金日成 偶像化에 따른 革命歷史 著作 階級鬭爭理論展開, 主体思想의 唯一思想化 作業 등 중요한 作業을 遂行하고 있다.

通信社의 組織 역시 新聞社 組織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北韓의 경우 中央通信社는 政務院의 直屬機關으로써 通信社 自体의 實務責任者는 社長이다. 「社長」이란 用語가 資本主義的 色採를 띠다고 해서 다른 機關에서는 使用하지 않으나 通信社의 경우에는 對外的인 問題를 考慮해서 아직까지 使用하고 있다.

通信社에 關係되는 중요한 政策的 決定은 政治局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副社長은 海外 및 各道의 支部關係 業務만을 맡고 있으며 實際的인 次元의 通信內容部分은 主筆이 担当하고 있다. 主筆은 또한 副主筆의 도움을 받아 對内外 報道記事의 作成 및 編輯을 監督하며 「中央通信社」가 發行하고 있는 出版物의 製作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機構上 한가지 特異한 點은 通信社機構 속에 韓國을 專担하는 「南朝鮮 報道編輯局」이 別途로 設置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調查處안에 韓國關係資料를 蒐集·管理하는 特別機構를 두고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事實은 通信社가 對南工作에 얼마나 깊숙히 關係하고 있는가를 잘 說明하고 있다.

通信社의 組織·機構를 보다 잘 理解하기 위하여 北韓에 있는 唯一한 通信社인 「朝鮮中央通信社」의 機構圖를 간단히 要約해서 圖式하면 대개 아래와 같다.



北韓의 放送은 表面的으로는 黨과 政務院의 二元體系로 組織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北韓의 放送事業은 政務院所屬으로 中央放送委員會의 指導 밑에 運營되고 있다. 그러나 黨은 黨連絡部를 통해 中央放送委員會에 政策的으로 關係하기 때문에 前述한 바와 같이 黨의 監視·監督이 內容的으로는 政府의 監督보다는 優先하고 있다. 政務院 體系는 交通委員會가 主管하여 放送局施設 및 機材를 管理하고 事務的 運營을 担当한다.²⁵⁾

中央放送委員會 傘下에는 各 市·道 放送委員會가 있고 그 밑에 郡·邑 放送委員會가 存在하며 그 下部機關으로써 有線放送 中繼所가 있다. 交通委員會 體系를 보면 交通委員會 下部에 市·道 通信局이 있고, 그 밑에 郡通信所가 있으며, 邑通信所 傘下에 有線放送中繼所가 있다.²⁶⁾

放送體系의 한가지 特徵은 對南放送의 直接的인 運營이라 보겠는데 이러한 役割을 맡고 있는 平壤放送은 內容的으로는 中央黨 連絡部에 의해 運營되고 있다. 中央放送委員會는 北韓의 諸般施策과 情勢를 放送을 통해 널리 住民속에 浸透시키는 宣傳目的을 위해 一切의 放送에 관한 指令과 統制를 總括하면서 그 傘下에 平壤放送委員會와 各 市·道 放送委員會를 두고, 그 밑에 郡單位로 郡放送委員會가 있다. 放送委員會는 放送局과 완전히 分離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放送內容은 放送委員會의 檢閱을 거친 것이며 放送局은 檢閱된 內容만을 단지 技術的으로 放送할 뿐이다.²⁷⁾

北韓에 있어서 放送組織에 관한 理解를 돕기 위해 放送組織關係를 簡略하게 圖式化하면 아래와 같다.²⁸⁾

雜誌의 경우도 비슷하다. 執行機關으로서의 政務院의 直屬機關인 出版總局이 行政節次上的 監視·監督을 遂行하고 있으며 政策的인 統制는 黨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の 出版課가 遂行한다. 그러니까 表面的으로는 二元體系를 維持하고 있으나 內容的으로 單一體系의 形態라고 볼이 妥當하다.

出版總局은 局長을 實務責任者로 그 밑에 副局長 그리고 그 傘下에 出

25) 《北韓全書》中卷, 前掲書, 256 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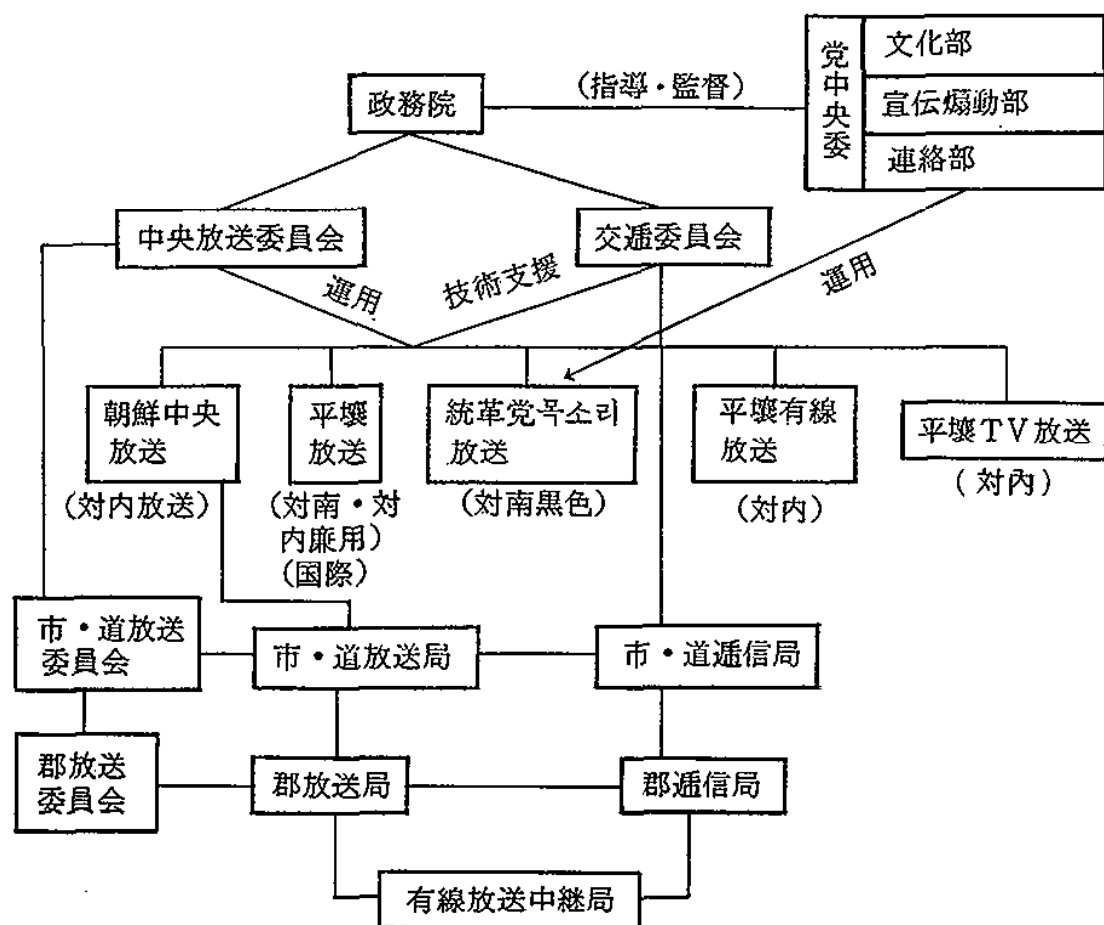
26) 崔昌燮, 「放送: 對内外 心理戰의 手段」, <北韓>, 通卷 63 号, 1977 年, 82-83 面.

27) 上掲論文.

28) 上掲論文, 82 面에 다 筆者의 修正을 첨가해서 提示하고 있음.

版處・出版指導組織部・印刷處・圖書普及處・出版普及部・經濟計劃處・財政簿記處・事務處・幹部部 등 6 個處와 3 個部를 두고 있다.

放送組織體系圖



V. 北韓 言論의 現況

北韓의 言論(新聞・通信・放送・雜誌)은 現在에도 「主体思想의 열렬한 宣傳者, 黨政策의 積極적인 擁護者, 그리고 金日成 偶像化를 위한 政治思想의 武器」²⁹⁾로서 말은 바 機能과 役割을 충실히 遂行하고 있다고 보겠다. 1978年 4月 30日 <교원신문> 創刊 30돌 記念報告會에서 北韓當局은 全体 言論의 役割에 言及하면서 「首領과 黨이 내세운 政治・經濟課業으로

29) 韓國新聞研究所, 《78 韓國新聞放送年鑑》, 서울: 신문연구소, 1979年, 185面에서 再引用.

人民大衆을 組織・動員하는 武器」가 되어야 하며 미디어從事者는 「黨과 首領의 참된 文筆勇士」가 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強調했다.

北韓의 言論을 細分해서 그 現況을 要約하면 아래와 같다.

1. 新聞의 現況

現在 北韓에는 20餘種의 主要 新聞을 包含해서 多様な 新聞들이 發行되고 있다. 그 中에서도 發行部數가 많고 影響力이 높은 主要 新聞으로서는 <로동신문>・<민주조선>・<평양신문>・<로동청년>・<로동자신문>・<농업근로자>・<교통신문>・<새날>, 그리고 <평양타임스> (英文) 등을 꼽을 수 있겠다.

北韓에 있어서 新聞의 發行部數를 正確하게 算出하기는 거의 不可能하다. 원래 新聞의 發行部數란 正確하게 算出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北韓의 경우 發行部數가 政治的인 目的 때문에 膨脹되어 報道될 뿐만 아니라 政治教育의 手段으로서 그냥 無料로 大量 配付하기 때문이다. 無料로 配付하는 新聞은 正確하게 發行部數에 넣어 算出하기 곤란하다.

北韓當局이 發表한 內容을 中心으로 大略 推定해 보면 勞動黨의 機關紙인 <로동신문>이 約 70萬部, <로동청년>이 約 10萬部, 그리고 政務院의 機關紙인 <민주조선>이 約 6萬部 程度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기타의 社会团体・工場・企業所, 그리고 大學 등에 의해서 出版되는 新聞들은 모두 5萬部를 넘지 않을 것으로 推定된다.

北韓의 新聞들은 모두 한글 專用이며 또한 가로쓰기로 編輯되고 있다. 대부분의 記事는 中央通信에 의해 供給되며 <로동신문>이 여타 新聞들의 內容과 編輯의 基準이 되고 있다.

北韓 新聞의 紙面構成을 보면 一般的으로 1面에는 金日成 演說文・談話文・施策指示・各種大會 進行소식이 掲載되고, 2面에는 重大施策의 解說과 共產主義의 教養 및 黨의 宣傳이 掲載되며, 3面에는 地方의 職場・企業所 등의 模範記事와 社會相을 造作한 記事가, 4面에는 韓國과 韓國의 友邦을 故意的으로 誹謗・中傷하는 記事가 掲載되고 있다.³⁰⁾ 社會의 어두운 記

30) 韓國新聞研究所, <78 韓國新聞放送年鑑>서울: 신문연구소, 1978年, 91面.

事는 一切 掲載하지 않으며 廣告도 新聞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로동신문>은 朝刊으로 年中無休로 發刊되고 있으며 6面이다. 1978년에 北韓政權 創建 30돌을 맞아 그 記念으로 黨機關紙는 1977年 中旬의 「金日成主体思想 國際討論會」때와 같이 8日間 異例적으로 增面發行했으며, 新聞의 크기도 6月 18日(日曜日)字부터 소련의 <프라우다> 紙 크기에서 中共의 <人民日報>크기로 약간 縮小되었다. 그러니까 西歐社會의 新聞 크기와 같게 調整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新聞 크기의 調整의 理由는 現在로서는 分明하지 않다.

2. 通信社의 現況

前述한 바와 같이 北韓에는 하나의 通信社밖에 없다. 「朝鮮中央通信社」가 바로 北韓에 있어서 모든 뉴스의 統制를 專担하는 神經組織으로서의 唯一한 通信社이다. 이것은 소련의 타스通信社, 그리고 中共의 新華社의 組織과 비슷하다.

「中央通信」도 新聞이나 기타 매스미디어와 같이 黨이나 政府의 強力한 統制를 받아 奉仕하고 있으며 北韓 言論에게 約 90퍼센트 程度의 뉴스를 提供하고 있다. 특히 放送미디어와 더불어 國際宣傳에 效果的으로 利用되고 있다.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政務院의 委任에 따라 北韓의 公式的인 聲明을 發表하는 任務를 担当하고 있다. 中共의 新華社, 그리고 소련의 타스通信을 包含한 世界의 多數 通信社와 「報道交換 및 相互協調協定」을 締結해서 뉴스를 交換하고 있다.

그외에도 日刊으로서 <朝鮮中央通信> · <写真通信> · <英文通信> · <露文通信> · <仏文通信>, 그리고 <스페인通信>을 發刊하며 月刊으로는 <국제생활>과 <보도>를 發刊하고 있다. 그 外의 任務로서는 <조선 중앙年鑑>을 出刊하고 있으며 對外通信으로서는 英文 RTT無線通信 · 仏文無線通信 · 露文無線通信, 그리고 스페인無線通信 등을 放送하고 있다.

3. 放送의 現況

北韓에 있어서 放送은 中央放送 · 平壤放送 · 統革黨放送 · 平壤有線放送,

그리고 平壤텔레비전放送으로 構成되어 있다. 中央放送은 北韓 對內라디오 放送이며, 平壤放送은 對內·對南·對國際社會의 3 가지 機能을 同時에 遂行하는 라디오放送이며, 統革黨放送은 對南黑色宣傳을 專担하는 라디오 放送이며, 平壤有線放送은 有線放送을 專担하는 對內라디오放送이며, 平壤텔레비전放送은 對內텔레비전放送이다. 그리고 그 傘下에 地方放送組織이 있다.

1972年 11月 南北調節委에서 「相互誹謗中止」合意에 따라 北韓은 終前의 「朝鮮中央 第1放送」을 「朝鮮中央放送」으로, 그리고 「第2放送」을 「平壤放送」으로 各各 改稱하고 一時 對南非難放送을 緩和하였으나 1973年 中半期부터는 다시 非難放送을 再開하였다. 黑色放送인 「統一革命黨號소리」放送도 1970年 6月 以前에는 「南朝鮮解放放送」이라고 불리웠는데 正體를 숨기기 위해 放送局 이름을 現在의 이름으로 改稱했으며 出力도 創設 當時 50킬로와트로부터 現在 150킬로와트로 補強하였다.

北韓은 現在 放送出力을 解放 當時의 約 100倍로 늘려 라디오의 경우는 總出力을 2,070킬로와트로, 텔레비전의 경우는 105킬로와트로 增大시켰으며, 送信所 17個所와 中繼所 20個所를 設置하고 있다.³¹⁾

텔레비전放送에 力點을 두기 시작하면서 受像機 生産을 自體的으로 이룩했으며, 年生産 10萬臺를 目標하고 있다.

北韓은 또한 라디오 受信機 不足과 기타 政治的 統制의 理由를 들어 中央 放送에 連結되는 有線放送體系를 全地域으로 擴大하여 對內宣傳·煽動을 強化하고 있다. 現在 有線放送은 全体 家口의 約 65퍼센트에 該當하는 100萬 家口에 普及되고 있다.³²⁾

라디오放送은 1日 平均 20時間의 放送을 實施하고 있는데 이것을 放送局別로 나누어 보면 「中央放送」이 19時間, 그리고 「平壤放送」은 21時間을 消費하고 있다. 특히 「平壤放送」의 경우는 그 放送時間의 70퍼센트 以上을 對南誹謗放送으로 一覽하고 있다. 最近에 와서 北韓의 라디오 放送은 對南宣傳을 위해 深夜放送을 強化하고 있다.

31) 《北韓全書》中卷, 前掲書, 257面.

32) 崔昌燮, 前掲論文, 85面에서 再引用.

北韓에 있어서 라디오受信機 普及率은 1961년에 人口 100名당 2.7臺
 꼴이던 것이 1974년에는 7.2臺꼴로 增加되었다. 現在 受信機 普及率은
 正確한 統計가 없어 推定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事實은 受信
 機 普及狀態가 극히 不振하며 韓國에 比할 때 상당히 落後되어 있는 것 같
 다.

텔레비전의 경우 「平壤텔레비전放送局」은 1日 平均 4時間씩 正規放
 送을 實施하며 內容은 全体 프로그램의 50퍼센트가 映画이며, 30퍼센트
 는 女性 및 어린이 內容이며, 10퍼센트는 報道·論評·解說이며, 나머지
 10퍼센트는 科學 및 記錄映画로 이루어지고 있다.

텔레비전 編成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內容의 絶對多數는 金日成의
 偶像化·主体思想·共產主義理論, 그리고 對南誹謗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全体 放送時間의 절반이 映画上映에 割當되고 있는 狀態가 바로 그러한
 狀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겠다.

텔레비전受像機 普及狀態 역시 資料가 없어 正確하게 推定하기는 어렵다.
 1970년에 約 1萬臺의 普及率을 나타냈고, 그 後 1973년에 西方國家로
 부터 15萬臺를 輸入하기 위해 交渉했으며 그 後 1975년에 6萬 7,000臺
 輸入, 1976년에 2萬臺 輸入 등으로 해서 現在 어느 정도의 텔레비전이
 普及되고 있음이 確實하다.

4. 雜誌의 現況

現在 北韓에는 約 82種의 雜誌가 4,000萬部 정도의 發行部數를 가지고
 普及되고 있다.³³⁾ 그들은 詳述하면 黨 政治理論誌로서 <근로자>를 위시
 해서 科學部門 雜誌인 <사회과학>, 階層別 雜誌로서 <청년생활>과 <조
 선여성>, 文學藝術部門의 雜誌로서 <조선예술>·<조선문학>·<청년
 문학>·<아동문학>, 그리고 <영화문학>, 學生少年雜誌로서 <대학생>
 ·<새시대>, 그리고 <꽃봉오리>, 大衆雜誌로서 <천리마>, 그리고 對
 外宣傳雜誌로서 <오늘의 조선> 등이 되겠다.

이 中에서도 <근로자>의 位置는 確固하다. 共產黨理論이나 金日成 偶

33) 金鍾完, 前掲論文, 72面.

像化와 關聯된 理念的이고 理論적인 局面은 이 雜誌가 主로 取扱한다. <근로자>의 編輯方向은 따라서 金日成의 唯一思想을 教養하고, 黨政策을 宣傳하고, 對南, 그리고 反帝·反美 宣傳과 煽動을 遂行하고, 그리고 北韓 住民을 共產主義型 人間으로 改造하는 思想教養에 主로 맞추어진다. <근로자>는 總 64 페이지로 그 紙面數가 限定되어 있는게 特徵이다.³⁴⁾

VI. 結 論

共產主義國家에 있어서는 言論이란 政治體系의 下部構造에 불과하다. 따라서 言論은 政治體系에 의해서 決定的으로 影響을 받는다. 이러한 政治와 言論의 關係가 가장 極적으로 나타난 地域이 北韓이다.

北韓은 世界에서 가장 全體的이고 前衛的이고, 閉鎖된 政治社會의 하나이다.北韓의 言論은 이러한 政治體系의 性格 때문에 또한 世界에서 가장 閉鎖된 言論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北韓의 言論은 金日成의 唯一思想을 宣傳·煽動하고 金日成의 偶像化를 위해 北韓 住民을 動員·組織하는데 한 치의 餘有도 없이 硬直되어 있다. 그리고 對外的으로는 南韓을 孤立시켜 共產統一하는 目的으로 완전히 遮斷되어 있다.

그런데 問題는 國際社會는 여러가지 形態로 開放되기 始作했으며 이러한 國際社會의 開放趨勢는 直接 혹은 間接으로 北韓에 影響하기 始作했다는 事實이다.北韓 政治는, 따라서 北韓 言論은 이러한 趨勢에 어떻게 適應하느냐의 課題를 願하는 願하지 않은 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北韓 言論의 두번째 課題는 不可避하게 對內와 對外戰略을 다르게 適應해야만 하는 現實에 부닥치게 되었다는 事實이다.北韓 住民을 相對하는 言論活動의 樣相이 國際社會를 相對할 경우 엄청난 障壁에 부닥쳤으며, 따라서 國際宣傳의 경우 目的에는 變化가 없더라도 目標나 具體적인 指針에 있어서는 北韓 言論의 本來의 方針에서 修正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修正의 斷面이 國際宣傳活動에서 最近에 部分的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34) 上揭論文, 73 面.

보인다.

따라서 北韓 言論이 当面한 가장 重要한 問題는 어떻게 이러한 變化趨勢에 適應하느냐로 要約될 수 있겠다. 部分的으로는 北韓의 國際宣傳戰略과 戰術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北韓 言論이 어떤 方向으로, 그리고 어떤 內容과 形態次元에서 修正해 나갈는지 대단히 興味있는 學問的 關心의 하나라고 보겠다.